

장성 나노산단 우여곡절 8년만에 첫 삽 뜬다



오는 20일 기공하는 나노산업단지 조감도.

20일 기공식...1268억 투입 80개 기업 유치 목표

90만㎡에 정보·생명과학·나노·환경기술 집적화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기한 답보상태에 놓였던 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지 무려 8년만이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양수 장성군수, 이낙연 국회의원,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등 내빈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산단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린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겪으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군은 지난 2010년 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어 지난 2011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나노산단 조성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협약조건 협의 등을 거쳐

면서 착공이 계속 늦춰져 올 초에서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실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으며, 군이 직접 토지 보상 업무를 대행, 현재 98%의 협의를 보이고 있다.

장성군 나노산단은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1865㎡에 1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환경기술(ET) 업종을 총망라한 나노기술의 집적지로 조성된다.

군은 나노산단이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24호선이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광주 첨단산단, 광주 과학기술원 등이 연접해 있어 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해 분양 전망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공 전 이미 나노기술과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환경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34개의 유망기업들이 군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입지를 공급, 부지 준공 이전에 80개의 기업 유치와 부지면적 약 46만㎡를 분양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김양수 군수는 "8년을 끌어온 군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군의 미래를 짊어질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남평 수원리~산포 산제리 군도 29호선 확·포장공사

나주시 특별교부세 7억 확보...곧 착공

나주시는 12일 "최근 남평읍 수원리와 산포면 산제리를 잇는 군도 29호선 확·포장공사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도 29호선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아 농기계와 차량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착수하게 될

공사의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길이 6.5km, 너비 8m로의 확·포장공사는 오는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접근성 개선으로 물류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도서관 LED조명 교체사업 등

강진군 2건 국비 3억여원 확보

강진군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4년도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군청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 및 출입구 개선사업'과 '도서관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2건이 선정

돼 국비 3억4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별로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를 발굴해 응모하면 정부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 50%를 보조해주는 국비지원사업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장성 꽃감만들기 한창

지난 11일 오전 장성군 북하면 한 농가에서 겨울철 별미인 꽃감을 만들기 위한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장성꽃감은 대봉시를 이용해 만들어 일반 꽃감에 비해 맛이 좋고 당도가 뛰어나다.

(장성군 제공)



지난 여름 강진군 신전면 신흥리에서 여주수확체험단이 여주를 수확하고 있다.

먹는 인슐린 강진 '여주' 브랜드 특화 기틀 마련

군, 2014년 지역 실용화사업 공모 사업비 4억 확보

강진군이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여주'의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12일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팀장은 '여주는 기후적, 건강·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망 작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여주 재배기반 조성, 브랜드 통합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 여주 가공기 능가 지원 및 체험농장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래 유망 작물이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여주는 재배는 쉽지만 특유의 쓴맛으로 인해 생과 판매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재배농가와 업체와 연계해 견여주, 차, 가루, 환, 쿠키, 효소 등 각종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여주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 2011년부터 여주 재배단지 육성에 나서 현재 2ha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최영창 원예연구팀장은 "여주는 기후적, 건강·기능적인 측면에서 유망 작목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여주 재배기반 조성, 브랜드 통합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 여주 가공기 능가 지원 및 체험농장 육성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는 맛이 쓰고 한해살이 냉콜성 박과 채소로 흑 같은 돌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익으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며 비타민 C 함량이 많다. 또 혈당 강하에 효과가 있어 먹는 인슐린이라고 불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전북



지난 11일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개장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고창 천일염의 맛을 보고 있다.

고창에 소금전시판매장 문열어

선운산 도립공원내...천일염 판로 확장 기대

고창군은 지난 11일 선운산 도립공원에 건립된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수 군수와 박래환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김재찬 해리농협장, 기관사화단체장, 천일염생산사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 고창소금전시판매장은 연면적 146.43㎡ 규모의 건물로 천일염 광역연계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됐다. 천일염 광역연계권 협력사업은 농

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고창·영광·무안 3개 천일염 생산지역과 수도권 소비자를 연계시켜 천일염 소비지역 판로 확장 등을 통해 천일염 명품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강수 군수는 "고창소금전시판매장 개장으로 고창 소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소금과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람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문화원, 12세기 초 추정 석불입상 발견

남원문화원이 12일 "12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남원문화원은 9~10일 남원시 송동면 사촌리 원통산 뒷산에서 남원향토대학과 전국 석불 문화연구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불·마애불을 답사하던 중 12세기 초의 것으로 추

정되는 석불입상 1개를 발견했다. 전체 높이는 215cm, 광배 폭 133cm, 불신 높이 160cm, 불신 폭 120cm로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가 있고 귀는 짧으며 이마에 백호공이 있으나 후부 한 것으로 보이며 얼굴은 등근형을 이루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단신

순창의료원 신축공사 내년말 완공

군, 89억 들어 교성리에...응급부·장례식장 등 갖춰

순창군이 순창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내년 말 완공을 위해 최근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다.

군은 의료원이 이전 신축될 경우 지역 보건사업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보건서비스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2일 "당초 77억원의 예산에서 12억원이 늘어나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39억원, 도비 6억원 등 모두 77억원의 사업비만 확보하는데 그쳐 그대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보강 차원에서 올 추경에 도비 7

억원 등 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신축될 보건의료원은 순창읍 교성리 419-1번지 일원 9558㎡ 부지에 들어서 진료부, 응급부, 병동부, 보건사업부, 장례식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설계역역을 착수, 10월에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사를 최종 통과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708㎡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으며, 서류검토 후 조만간 입찰공고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원 최면식 보건행정담당

"지역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질 보건의료원의 이전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역보건 발전이 기대된다"며 "내년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병치료와 입원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구립면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올해 금과면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금과보건지소는 70%의 공정률로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 건물로 이전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지역 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 출범

6개 사회적기업 대표 등 참여

전주지역 문화예술분야 6개 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사이'가 지난 11일 고사동 구 KT&G 사무실에서 창립 1주년 및 사무실 이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협동조합 '사이' 조합원 및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사회적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는 전주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인 (사)꼭두, 문화포럼나눔네, (사)공인문화발전소 명대, (사)타악연희원 아류, 전북예술문화원, (유)가온교육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문화예술사회적기업들의 협력사업 및 문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협동조합 사이 심재균 대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함께 사회서비스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높이고 공동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연수관광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원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연수관광지구 조성 예정지구를 오는 14일자로 해제한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은 운봉읍 주촌리, 덕산리, 공안리 일원 471만3000㎡(2045필지)로 지난 2008년 11월14일부터 당시 연수관광지의 원

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돼 5년간 허가 구역으로 지정관리됐다.

그동안 68필지만이 토지 거래가 허가됐으며, 이번 해제로 인해 모든 규제 사항이 사라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리가 됐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 농민단체, 박연희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

정읍시 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재기)는 12일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읍시의회 박연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안 건의,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하여 농

민을 대변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6대 초선의원인 박 의원은 조례안 5건, 동의·결의안 12건, 시정질문 4회, 5분 자유발언 11회 등 모두 32건의 농촌 문제 및 농업소독향상 등 농업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국학진흥원, '국학순회 교양강좌' 열어

순창군과 한국국학진흥원(원장 김병일)은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13일 오후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순창지역의 유학전통과 문화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제51회 국학순회 교양강좌'를 연다.

순창군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교양강좌는 순창군민들에게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심

어주고 한국인의 문화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순창지역은 유교의 관점에서 볼 때 각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고르게 배출된 곳"이라며 "예술 방면에서도 '융합', '중화'의 정신을 잘 발휘한 곳"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대서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

국제적인 한식 스타셰프(요리장)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한식조리학교가 14~15일 전주대 조리학교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북 고메(Jeonbuk Gourmet)'를 연다. 전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정상급 셰프 12명을 초청, 전북

의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 시연, 셰프의 토크(Chef's Talk), 갈라디너(Galla Dinner)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인에게는 매회 100인분의 시연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